

# “빠른 탄핵만이 나라 구하는 길... 윤석열 당장 체포해야”



강기정 광주시장이 최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비상 시국대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을 촉구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12일 오전 전남도청 앞 '윤석열 탄핵 및 국민의 힘 정당 해산을 촉구'하는 전남도의회 단식농성장을 방문,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김이강(왼쪽부터)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임택 동구청장·문인 북구청장·박병규 광산구청장 등 광주 5개 구청장들이 12일 동구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尹 ‘억지 담화’에 한목소리 비판 광주 구청장들도 퇴진 요구... ‘국정지표’ 철거하고 1인 시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광주·전남 단체장들도 분노를 표출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를 촉구하고, 집무실에 걸어놓은 현 정부의 6대 국정 지표 액자를 철거하는 등 탄핵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강기정 시장은 12일 윤 대통령 담화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답 없는 윤석열”이라고 비난했다. 강 시장은 “(윤 대통령을) 지금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국회는 토요일이 아니라 당장 탄핵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강 시장은 지역 원로회의와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열어 민생안정과 함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단체·종교계·학계 등의 힘을 모으고 있다. 또한,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선물하며 탄핵 찬성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반국가 반헌법 세력임을 자인했다”며 “바로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담화를 보니 한심하고 참담하다”며 “일부 보수 유튜브 주장을 방패 삼아 국민을 오도하려는 반헌법적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탄핵의 시급성과 당위성만 확인하는 불법적인 담화”라면서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14일 전이라도 바로 탄핵해야 한다. 이제 빠른 탄핵만이 국가를 구하는 길”이라고 탄핵을 촉구했다.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그리고 시 산하 기관장들은 이날 집무실에 있던 국정지표를 모두 철거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무실의 6대 국정지표 액자를 철거하는 사진을 올렸으며,

김이강 서구청장·김병내 남구청장도 이날 오전 국정지표 액자를 철거하고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임택 동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1월 수정 발표한 국정지표 액자 자체를 집무실에 걸지 않고 있다. 광주 5개 구청장을 또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도 돌입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각 구청 앞에서 ‘윤석열! 탄핵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이후 광주 동구청에 모여 민생안정 대책 등도 논의했다. 구청장들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두 차례 시위를 하기로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시민들은 추위 속에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구청장으로서 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면서 침체한 민생 경기도 챙기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국민에 총 들이밀더니 계엄이 장난이냐” 윤석열 담화에 광주·전남 지역민들 분노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담화에 지역민들은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45년 전으로 회귀한 것 같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시민들은 “다시한번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이유가 확인됐다”며 결의를 다졌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교육계 등은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이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비상계엄 조치는 국민에게 아양의 패악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담화가 발표되자 광주 시민들은 “계엄이 장난이냐”며 분노했다.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밀는 계엄이 질서유지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 서구화동에서 사는 전상훈(34)씨는 “질서를 지키게 하려고 계엄을 선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현실 인식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는 사람이 아직 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는 게 무섭다”고 고개를 저었다. 신혜린(여·24)씨는 “지난 토요일부터 민주광장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며 허탈한 마음이 들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일 수 있는지 답답하고 무섭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오월 단체는 이번 담화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성토했다. 김희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은 “초등생부터 노인들까지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담화 내용은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은 전부 국민이 아니라는 말과 같다”며 “반성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란데 국민을 되레

협박하고 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순석 5·18 기념재단 이사장은 “탄핵 이후 내란죄로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자 면피용 발언을 하고 있다”며 “다시는 계엄령으로 군대가 동원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 이후에도 전두환씨와 같은 사면은 절대로 이뤄져선 안될 것”이라고 점언했다.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노동·교육계도 일제히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광주진보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극렬 극우세력만이 윤석열이 생각하는 국민이었다. 절대 스스로 물러서거나 내려오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전국민을 적으로 만든 담화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국속노조 광주전남지부도 담화를 두고 ‘범죄자의 망언’이자 ‘내란수괴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이런 대통령이 배출된 것 자체가 대한민국 공교육의 수치다. 교사들은 국민과 싸우라고 가르친 적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광란의 칼춤을 벌이는 윤석열을 1분 1초라도 빨리 구속하고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연구자 134인은 이날 긴급 시국선언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이 획책한 내란이었음이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수호하고 법치 질서의 확립과 상식의 회복을 위하여 윤석열의 탄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선관위 “尹 담화, 자신 당선된 대선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선관위의 전산시스템 점검을 거론한 데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해 합동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

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OK! NOW JEONNAM**

**전라남도 일자리정보망 소개합니다!**

- 1 인터넷에 '전남일자리정보망' 검색**  
전라남도 일자리정보망
- 2 민간·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통합제공**  
고용24, 사람인, 나라일터, 전남도청 등 민간·공공기관 연계
- 3 구직자 입장을 생각한 맞춤형 검색 기능 지원**  
근무지역, 희망직종, 경력, 학력, 고용형태, 희망임금
- 4 채용정보 비교하기**  
원하는 채용 정보 선택 후 한눈에 비교 가능
- 5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스마트폰 최적화 화면을 통해 어디서든 일자리정보망이용 가능  
전남기업소개, 취업준비진단, 지원사업 소개, 시가지소개서